

독자적인 東아시아 歷史像의 구성을 위한 小論

朴 元 燦*

I

日帝의 植民地에서 벗어나 독립된 韓國에서 韓國人 연구자들에 의해 東洋史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45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韓國戰爭이 끝난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韓國戰爭중에 다시 결성된 歷史學會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몇몇 東洋史연구자들은 계몽적 史論이 성행하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外國의 연구현황을 소개하며 東洋史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다. 때마침 각 大學에 설치된 史學科와 延大 東方學研究所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등 大學부설연구소의 활동에 힘입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연구자들은 1965년에 31명이 모여 東洋史學會를 조직하고, 研究誌인 『東洋史學研究』를 발간할 수 있게 됨으로써 東洋史연구의 중심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韓國에서의 東洋史란 곧 中國史를 의미할 정도로 대부분의 연구자가 中國史연구에 매달리긴 하였지만, 연구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도저히 中國史의 모든 시대를 제대로 커버할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제각기 자기의 분야에서 하나의 점으로 고립된 채, 가느다란 外國의 학술정보에 의지하며 고독한 연구활동을 이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中國史의 넓은 시대와 분야에 흠어져 각자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개척자적인 연구를 해오던 터이었으므로 공동연구라든지 학술논쟁같은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韓國의 東洋史學은 하나의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韓中關係史연구가 거의 전시대에 걸쳐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연구자료의 획득이 용이하고 비교적 독창성있는 연구성과

* 고려대학교 교수 (중국근세사)

를 기대할 수 있으며, 自國의 歷史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韓中關係史가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韓中關係史연구가 한때를 풍미한 결과 韓中간의 朝貢關係·貿易·戰爭·學術文化交流·近代外交關係 등에서 研究史에 남을 괄목할만한 업적이 적지 않게 생산되었다.¹⁾

그러나 韓中關係史연구가 정작 中國史보다도 오히려 韓國史연구에 가까워지며 中國史연구 자체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批判도 한편에 존재하였다. 이리하여 연구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中國史연구의 핵심적인 문제로 파고드는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日本의 「古代帝國形成論爭」에 자극받아 이루어진 古代의 中央集權의 皇帝支配體制의 형성문제나 古代의 農業技術을 중심으로 한 生産力의 발전문제, 또는 清代 紳士層의 存在樣態를 다룬 일련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다.

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美中修交로 말미암아 中國에 대한 관심이 크게 提高되는 가운데 해방이후 東洋史연구의 가장 중요한 支柱가 되어왔던 서울 大에서 東洋史學科가 독립되고 지방大學에서도 속속 史學科가 증설되어 연구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中國史의 연구도 더욱 세밀하게 분화하며 심화되어 갔다. 70년대에는 그동안의 韓中關係史연구에서 탈피한 본격적인 中國史연구의 專著가 출판됨과 동시에, 주로 商王朝史, 戰國時代의 國家體制·連坐制, 魏晉南北朝의 門閥貴族, 唐代의 宗教, 唐末의 變革, 宋代의 官僚·教育·土地制度, 遼·金·元의 支配體制, 明代의 制度, 明·清의 紳士階層, 明末清初의 思想·西學, 清朝의 統治政策, 洋務運動, 武戊變法, 辛亥革命등이 70년대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 각각 여러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²⁾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

1) 金莘基 教授의 『東方文化交流史論攷』(乙酉文化社, 1948)와 『東方史論叢』(서울大出版部, 1974)과 같은 선구적인 업적의 뒤를 이어, 60년대에는 高柄翹 『東亞交涉史의 研究』(서울大學出版部, 1970)와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一潮閣, 1970)가 韓國學界의 대표적 연구성과였다.

2) 70년대의 대략적인 연구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歷史學報』39,44,49,60,72,84輯에 실려있는 「回顧와 展望」과 歷史學會編 『現代韓國歷史學의 動向(1945~1980)』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韓中關係史研究에서 벗어난 中國史연구의 대표적 專著로서는 閔斗基 『中國近代史研究』(一潮閣, 1973)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嚴永植 『洋務思想과 近代 兵工業의 興起』(慶熙大出版部, 1971), 尹南漢 『朝鮮時代의 陽明學研究』(集文堂, 1982), 李龍範 『中世北亞細亞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75), 金在滿 『契丹民族發達史의 研究』(讀書新聞社, 1974), 黃元九 『東亞細亞史研究』(一潮閣, 1976), 鄭世鉉 『近

할만한 현상은 中國이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적 연구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外國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東南아시아史·印度史·西南아시아史·北아시아史·日本史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中國史 중심의 韓國 東洋史學의 外延을 크게 넓혀 주었다.³⁾

8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특히 日本과의 교류확대와 더불어 日本史연구자가 늘어나고 中央아시아史를 전공하는 연구자도 새로이 배출되었으나, 東洋史學會의 창립 당시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中國史연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⁴⁾ 따라서 中國史연구는 기타 지역에 대한 연구보다 한층 밀도높게 진행되어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였던 표절에 가까운 논문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가 하면, 종래에는 연구대상에서 빠져있던 시대와 문제도 새로운 주목을 받게되었다.⁵⁾ 그동안 소수의 연구자가 선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직된 冷戰體制속에서 객관적으로 다루기 어려웠고 歷史學의 범주밖이라는 통념이 있었던 中國現代史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代中國民族運動史研究』(一志社, 1977) 등이 70년대에 출간된 專著들이다.

- 3) 東洋史學會는 29명에 달하는 회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70년대 韓國學界의 수준을 나타내어 주는 『概觀東洋史』(知識產業社, 1983)를 펴내었으며, 이 책에서는 中國외에도 日本·印度·東南아시아가 간략하나마 함께 다루어졌다.
- 4) 1980년에는 이렇게 크게 늘어난 연구자수를 배경으로, 서울大學 東洋史學科에서는 36篇의 論文으로 이루어진 『講座 中國史』(知識產業社, 1980)를 편찬할 수 있게 되었다.
- 5) 80년대 이후의 연구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歷史學報』108, 120, 132號에 실려있는 「回顧와 展望」을 참고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논문제목은 『東洋史學研究』에 「國內東洋史關係論文要目」으로 정리되어 있다. 주로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판된 中國史研究의 專著를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崔茂藏 『中國의 考古學』(민음사, 1989), 尹乃鉉 『中國의 原始時代』(檀大出版社, 1982), 尹乃鉉 『商周史』(민음사, 1984), 李成珪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一潮閣, 1984), 金翰奎 『古代中國의 世界秩序研究』(一潮閣, 1982), 李春植 『中國古代史의 展開』(藝文出版社, 1986), 朴漢濟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一潮閣, 1988),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一潮閣, 1986), 金文經 『唐代的 社會와 宗教』(崇田大出版部, 1984), 金文經 『唐 高麗遺民과 新羅僑民』(日新社, 1986), 卞麟錫 『安史亂의 新研究』(登雪出版社, 1984), 申採湜 『宋代官僚制研究』(三英社, 1981), 李龍範 『中世滿洲蒙古史研究』(同和出版社, 1988), 李龍範 『韓滿交涉史研究』(同和出版社, 1989), 金渭顯 『遼金史研究』(裕豐出版社, 1985), 李東夔 『東北亞細亞史研究』(一潮閣, 1986), 周采赫 『元朝官人層研究』(正音社, 1986), 曹永祿 『中國近代政治史研究』(知識產業社, 1988), 吳金成 『中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一潮閣, 1986), 崔韶子 『東西文化交涉史研究』(三英社, 1987), 權錫奉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一潮閣, 1986), 閔斗基 『中國近代改革運動研究』(一潮閣, 1985), 辛勝夏 『近代中國의 西洋認識』(高麗苑, 1985), 鄭世鉉 『近代中國新思潮論의 展開』(博英社, 1982), 高柄翊 『東아시아의 傳統과 近代史』(三知院, 1984), 卓用國 『中國史學史大要』(深求堂, 1986)

그 결과 가운데 하나로서 東洋史學界에서는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中國國民革命에 대한 연구서를 펴낼 수 있게 되었다.⁶⁾

50년대부터 오랫동안 갈구되어오던 공동연구가 실현되어가는 현상은 現代史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다. 보다 깊은 연구와 교류를 위해 1983년부터 시작된 東洋史學會내의 연구씨클 가운데, 明清史研究會는 격주로 모임을 가지며 꾸준히 史料講讀을 해나가는 동시에 공동연구를 한차례 시도한 바도 있다.⁷⁾ 近現代史研究會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공동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1987년부터는 魏晉南北朝·隋唐·五代史時代 東아시아 歷史研究를 목적으로 결성된 東亞中世史研究會와 乾燥地帶 遊牧文化圈의 歷史와 文化를 연구하기 위한 西·北아시아研究會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봄 가을 2회로 정리된 東洋史學會의 研究論文發表會에서도 같은 시대의 논문 3편 정도를 묶어서 독립된 패널로 발표시키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⁸⁾, 1981년부터 매년 겨울에 2박3일간 열리는 東洋史研究討論會에서는 공동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깊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⁹⁾ 특히 韓中修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1년의 제10회 東洋史研究討論會는 北京에서 「韓國 中國史研究的成果與展望」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韓國學者가 발표한 논문을 中國學者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

6) 일찌기 개설적인 金俊燁 『中國共產黨史』(思想界社, 1959)가 출간된 이래, 中國現代史 분야에 대한 歷史學界의 전문적인 연구는 8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閔斗基·白永瑞·李炳柱·裴京漢·羅茲洙 共著 『中國國民革命의 分析的 研究』(知識產業社, 1985)는 미리 공동의 주제를 걸고 5명의 연구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모은 연구서이다. 閔斗基教授를 위시한 공동연구팀은 이후에도 『中國 國民革命指導者의 思想과 行動』(知識產業社, 1988) 및 『中國 國民革命運動의 構造分析』(知識產業社, 1990)을 잇달아 내놓았다.

7) 吳金成·曹永祿·朴元眞·權重達·崔韶子 共著 『明末·清初社會의 照明』(한울出版社, 1990)

8) 제25회(1982)와 제27회(1984)의 全國歷史學大會 東洋史部에서 「元·明時代의 社會構造」와 「國民革命의 諸問題」가, 秋季東洋史研究發表會에서는 「清末民國初의 上海」(1984), 「明代後期의 政治와 社會」(1984), 「元明史의 諸問題」(1985)가 공동주제이었다.

9) 제1,2회 東洋史研究討論會에서는 研究動向이 다루어졌으나, 제3회는 「中國史의 時代區分」, 제4회는 「中國史에 있어서의 土地制度」, 제5회는 「儒學思想의 諸問題」, 제6회는 「北方遊牧民族史研究의 諸問題」, 제7회는 「中國史上的 民衆運動」, 제8회는 「中國史上的 支配階層」, 제9회는 「東아시아의 王權」, 제10회는 「韓國 中國史研究的 成果와 展望」, 제11회는 「中國史에서의 支配構造와 社會變動의 諸問題」, 제12회는 「東아시아史上的 鄉村」, 제13회는 「東아시아에서의 改革과 變動」이 주제였다.

다. 그 결과는 中國社會科學出版社로부터 『中國史研究的成果與展望』이란 제목으로 刊行되었다.

II

80년대부터는 손에 넣기 어려웠던 中國의 연구자료도 연구자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게 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제교류에 의해 연구자들이 外國의 學會나 研究誌에 국제적 수준에 오른 論文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동시에 外國의 學界에서도 韓國의 東洋史연구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거의 무시당해오다시피 하고 어찌다가 論文제목이나 소개되는 것이 고작이던 韓國의 東洋史연구성과가 이제는 外國學界에서도 論文과 연구서를 번역소개하는 일이 예사롭게 되어가고 있다.¹⁰⁾ 그동안 직접교류가 단절되어 있던 中國學界와도 80년대말부터 韓國學者들이 中國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함으로써 학술교류가 개시되었고,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연구자료를 얻고 역사유적을 답사하기 위한 韓國學者들의 中國방문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中國學界에서도 차츰 한국의 東洋史研究를 주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좋지 않은 연구환경 속에서 허덕이던 東洋史연구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 앞으로 韓國의 東洋史學의 연구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하게 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그렇지만 韓國 東洋史學의 연구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현재 韓國學界의 연구의 수준이나 단계를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미래의 한 世代안에 실현가능한 절실한 과제가 아니어서는 현실성이 희박한 空論이 되기 쉬운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의 東洋史연구가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과제 가운데, 日本·中國·美國學界의 視角이 아닌 韓國學界의 독자적인 視角으로 東아시아歷史像의 재구성을

10) 閔斗基 『中國近代史研究』(一潮閣, 1973)가 美國에서 National Polity and Local Power -- The Transformation of Late Imperial China, (Harvard Univ. 1989)로 번역되었고, 吳金成 『中國近世社會經濟史研究』(一潮閣, 1986)가 日本에서 『明代社會經濟史研究』(汲古書院, 1990)로 번역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시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東洋史」가 中國史나 東아시아史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아시아史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은 50년대부터 지적되어 오는 바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끈기있게 추진되어야 할 목표임에 틀림없다. 中國 이외의 지역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70년대부터 줄기차게 배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學會·大學·學術財團 등의 계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西南 아시아史나 印度史까지 포함된 아시아 전체의 歷史像을 韓國 東洋史學界의 연구에 의해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작업은 짧은 세월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아시아의 3大文化圈인 中國文化圈 印度文化圈 이슬람문화圈 가운데, 韓國이 모든 歷史시대를 통해 속해왔던 中國文化圈을 대상으로 東아시아歷史像을 독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70년대 이후 한결 늘어난 中國史를 위시한 東아시아史 연구자들은 이제 韓國學界 나름대로의 東아시아歷史像을 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좋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된다. 이는 결코 日本이나 中國學界 또는 歐美學界가 구축하여 놓은 東아시아歷史像이 전적으로 무너져야 할 무의미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韓國學界가 통일된 단 하나의 東아시아歷史像을 가져야 한다든지, 東아시아歷史像을 韓國위주로 또는 韓國史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소비니즘적인 發想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고 싶다. 앞으로도 外國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흡수하고 연구동향을 날카롭게 추적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東아시아世界의 일원으로서 歷史經驗을 살린 독자적인 視角을 통해 東아시아歷史像을 형성하는 일이, 곧 東아시아歷史像을 생각하는 世界學界에 韓國學界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III

1945년의 光復과 함께 日本人연구자들이 韓半島에서 물러간 이후, 韓國의 東洋史學은 극소수의 韓國人연구자들에 의해 일종의 꺾꽂이 형태로서 출발하였으므로 눈에 띄는 연구의 축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東洋史연구자들이 慣性에 의해 주로 日本 東洋史學의 영향을 받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연구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中國史에서도 전 시대와 분야를 커버하지 못하고 앞서가는 外國의 연구성과를 소화하기에 급급하여 왔다. 필요한 史料를 구할 수 없는 처지에서 外國論文을 먼저 읽고 이미 發想의 제약을 받은 채, 그 연구자의 결론에 이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外國의 學說과 用語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論爭의 꼬리를 따라다니기에 분망하다가 마침내 실망과 좌절을 느낄 때도 적지 않았다. 韓國學界가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던 日本과 中國學界의 연구방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연구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視角에 의해 歷史像의 재구성을 위한 問題意識을 스스로 발굴하지 못하고, 外國學界가 짜놓은 歷史像속에 安住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外國學界가 공들여 짜놓은 東아시아歷史像속에서도 결코 安住할 수는 없었다. 韓國學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日本의 東洋史學은 그 성립과 발전 자체가 日本의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아시아 특히 中國을 보는 視角도 현실상황에 따라 바뀌어져 왔다. 즉 日本의 中國史연구는 近代에서의 그들의 歷史經驗이 어떤 형태로든시간에 투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第2次世界大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日本의 中國史연구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연구자의 현실인식과 상황심리가 歷史研究에 얼마나 중대한 작용을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들면 日本의 패전과 中國社會主義革命의 승리는 日本의 일부 歷史家들로 하여금 中國社會가 '後進'으로부터 일약 '先進'으로 進入한 것으로 착각케 하여, 中國을 日本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까지 간주하였던 일도 있었다. 日本의 가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치절한 반성을 지녔던 일부 Marx主義 歷史家들은 倫理的으로는 정당하였으나, 日本의 실천적 과제와 지나치게 밀착된 연구로 말미암아

연구대상과의 사이에 지켜져야 할 안전거리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日本의 敗戰에 이어 中國社會主義革命的 승리, 文化大革命, 美中修交로 이어지는 中國現代史의 격동에 따라 ‘右’往‘左’往하는 日本學界의 연구체적을 볼 때, 韓國學界의 독자성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近代에 帝國主義·半植民地·植民地로서 각각 갈림길을 걸었던 日本·中國·韓國의 3國이 東아시아近代史를 보는 視角의 차이에 따라 問題意識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못된다.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支配를 경험하고 中國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역할을 한 적이 없는 韓國이 日本과 똑같은 中國史像을 그리게 된다면 오히려 기이한 일에 속할 것이다. 歷史발전의 형태가 日本보다는 中國과 더 가깝고 近代에서의 歷史經驗도 中國과 더 근사한 韓國은, 中國 스스로가 깨닫기는 어렵고 日本도 死角에 빠져 잘 보이지 않는 近代中國史像을 韓國의 입장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韓國은 비록 近代歷史學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中國史에 대한 오랜 이해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前近代 學人들의 저작을 통하여 독자적인 東아시아歷史像의 형성을 위한 암시를 얻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¹¹⁾ 이러한 작업은 日本·中國學界가 쉽게 손대기 어려운 독자적인 영역의 연구가 될 것이다.

日本과 中國學界가 東아시아史연구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그들중 일부 學者들은 쉽게 벗어던질 수 없는 ‘世界史의 發展法則’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日本과 中國學界에서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時代區分論을 보게되면 이러한 느낌은 더욱 선명하여진다. 서유럽의 歷史發展을 대상으로하여 추출된 發展段階論 가운데 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 ‘世界史의 發展法則’이란 呪文에 사로잡혀 中國史를 이에 代入하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古代奴隸制社會의 下限을 잡는데 같은 唯物史觀을 지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무려 천년 이상의 차이가 나오게도 되었다. ‘世界史의 發展法則’이 아시아 諸民族의 歷史에도 틀림없이 관철되고 있다는 증명을 함으로써만

11) 閔斗基·吳金成·李成珪 『朝鮮學人の 中國史研究의 整理 및 評價』(서울대출판부, 1980)는 이 점에 착안한 첫 움직임이다.

이 停滯性理論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까닭이었다. 이른바 '世界史의 發展法則'이란 자기완결성을 가진 세계 각 지역의 歷史를 충분히 연구한 끝에 추출되어진 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럽史 기준의 歷史觀에서 탈피하여 東아시아史 자체의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東아시아史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時代區分法이 5分法이든 7分法이든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東아시아史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韓國學界는 진정한 의미에서 '世界史의 發展法則'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였다는 보다 넓은 地平에 설 필요가 있다.

80년대에 들어 서서히 변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外國學界의 동향에 대하여 그동안 中國學界는 비교적로 폐쇄적인 상태였다고 한다면, 韓國學界는 外國學界의 동향에 대해 전혀 무지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민감한 양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韓國學界는 日本과 中國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美國과 유럽의 社會科學的 方法論에 입각한 연구결과도 충분히 활용하여 폭이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로 활용하고 연구인력과 연구자료의 부족을 극복하여, 먼저 中國史를 위시한 東아시아 各國史에 대한 전문적인 깊은 연구가 속출하여야 독자적인 東아시아 歷史像의 형성에 토대를 마련하여 주게 될 것이다.

IV

새로운 東아시아歷史像은 中國史·韓國史·日本史·베트남史 등 一國史의 단순한 集合이 아닌, 世界史를 구성하는 복합적 구성체로서의 자기완결성을 가진 東아시아史가 되어야 할 것이다. 中國史·日本史 등 各國史로서 연구와 교육이 행하여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족적 편견을 벗어난 東아시아歷史像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各國史의 내부구조에 대한 심화된 연구와 더불어 關係史·比較史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東아시아 各國간의 關係史와 比較史를 연구하는 일은 새로운 東아시아歷史像의 정립을 위해 아주 중요하며, 특히 近代史의 경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

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60년대에 성행하였던 韓中關係史연구를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70년대에는 제한된 연구 인원으로 中國史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펴기 위해서는 韓中關係史연구가 어느 정도 지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韓中關係史연구가 경시당하는 풍조마저 있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東아시아 各國史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연구자가 韓中關係史연구에만 매달리는 學界의 상황이 문제이었지, 韓中關係史 연구 그 자체는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에 틀림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韓中關係史뿐 아니라 韓日·中日·中越關係史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東아시아 各國의 比較史연구는 關係史연구보다 연구성과의 축적이 없는 미개척의 상태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도전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오래전부터 比較史연구의 중요성이 지적되어온 셈 치고는 연구성과가 아직 미미하며, 최근에 와서야 東아시아史 比較연구에 대한 선구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정도이다.¹²⁾ 같은 東아시아文化圈에 속한 國家나 民族의 歷史와 文化에서 類似點과 差異點을 주려내어 비교연구함으로써 民族主義史學이 빠지기 쉬운 편협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比較史의 방법에도 한계는 있다. 무엇을 비교하기 위해 대상을 한정시키는 순간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다른 요소가 시야에서 잘려 나가버리는 수가 많다. 動態的 파악보다는 靜態的 파악에 흐르기 쉽고, 계량화할 수 있고 비교하기 쉬운 것만이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各國史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다음이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렇지만 比較史연구가 빠지기 쉬운 이러한 결함을 자각하면 一國史의 개별적 특수성을 조망하기 위해 이 방법이 유효한 분야만을 골라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제기 단계에서 比較史的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일은 더욱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이다.

12) 全海宗 『東亞文化的 比較史的研究』(一潮閣, 1976)와 全海宗 『東亞史의 比較研究』(一潮閣, 1987)는 본격적인 比較史연구의 論文만으로 이루어진 책은 아니나, 東아시아 比較史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국내의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韓國學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東아시아 歷史像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韓國史와 東洋史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이후 각 대학에서 史學科가 설치될 때, 國史·東洋史·西洋史의 3분야로 歷史學의 전공을 분류한 것은 日本계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東아시아속의 一國인 韓國의 歷史를 東洋史로부터 분립시킨 것은 自國史에 대한 보다 깊은 歷史教育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歷史教育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 韓國史의 분립은 수십년이 흐르는 동안 어느덧 韓國史연구에도 한가닥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歷史教育의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설정된 韓國史와 東洋史사이의 울타리가 어느틈에 東洋史와 西洋史사이의 울타리 만큼이나 높아져 버렸고, 이러한 경계는 어느덧 연구자들에게도 고정관념으로 자리잡는 경향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東洋史연구자들은 日帝時代에 教科目的 편제상 「國史」였다가 해방이후부터는 연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던 日本史, 해방과 함께 새로운 國史로서 따로 독립하게 된 韓國史를 제외한 中國史만을 무의식중에 東아시아史로서 간주하고, 日本史 및 韓國史의 연구동향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일부에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東洋史연구자들이 韓國史의 연구성과를 착실하게 추적해 나가면서, 韓國史를 포함한 東아시아의 歷史像을 항상 그러보도록 애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東洋史연구자들이 韓國史에 대한 전문적인 論文을 쓸 필요는 없을지라도 韓國史 연구의 방향·방법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評論형식의 글을 통해 논급할 수 있는 풍토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歷史教育을 위한 편의적 분류가 歷史研究 자체를 규제하는 측면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東洋史연구자들은 韓中關係史연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려는 자세를 조금 보인 셈이었으나, 韓國史연구자들은 70년대 이래 고조된 韓國史연구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른바 韓國史의 內在的 발전을 추구하는 데 열중하여 關係史·比較史를 너무 가벼이 여겨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이는 關係史·比較史연구가 자칫하면 다시 植民主義史學의 '停滯性

理論'이나 '他律性理論'에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실 그동안 韓國史연구자들은 韓日關係史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을 보여왔으나 韓中關係史는 李仁榮의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같은 저서가 일찍부터 나와 있었던 셈치고는 近代史분야를 제외한 다른 시대는 거의 외면하다시피하여 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韓中關係史연구는 東洋史연구자들보다 韓國史연구자들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¹³⁾ 일찌기 李仁榮이 '民族的 世界觀에 입각한 世界史的 國史'를 주창한 이래 世界史속의 韓國史파악이 가끔 거론되어 왔으나¹⁴⁾, 世界史속에서 韓國史를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먼저 韓國史와 世界史를 매개하는 역사적 단위인 東아시아史속의 韓國史像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韓國史·東洋史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史연구자들은 이제 스스로 東洋史와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낮추어 버리고 활발한 關係史·比較史연구를 통해 一國史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東아시아史로서의 韓國歷史」를 구성해내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東아시아史로서 韓國史를 파악하는 일은 韓國史를 東아시아史 속에 용해시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韓國史의 개별적 특수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해방 이후 이른바 植民主義史學의 극복이라는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한 이제는 東아시아史로서의 韓國史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새로운地平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는 東洋史學界가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東아시아歷史像을 정립하는 작업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V

韓國의 東洋史學이 50년대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여온 것이

13) 최근 國史編纂委員會에서 『國譯 中國正史朝鮮傳』(國史編纂委員會, 1986)을, 韓國史研究會에서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三知院, 1987)를 펴낸 것이라든지,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檀大出版部, 1986)는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일이다.

14) 李仁榮 『國史要論』(金龍圖書株式會社, 1950)

사실이나 이웃의 日本·中國學界와 비교하면 연구의 質量면에서 아직 뒤떨어져 있는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韓國 東洋史學의 존재가치는 外國學界와의 평면적인 연구의 質量비교보다, 독자적인 問題意識에 입각한 東아시아歷史像을 형성할 능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歷史像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층이 한층 두터워져서 지금까지 공백지대나 다름없었던 시대와 분야에까지도 골고루 눈길이 닿아야 할 것이다. 政治史·制度史등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社會史·經濟史·思想史·史學史분야가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方法論的으로 社會科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일은 이제 진부한 주문에 속할 만큼 당연한 일이다.

같은 시대에 대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끼리의 공동연구의 기풍도 더욱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씨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활용할 韓國所在의 史料목록과 같은 工具書도 계속 만들어져서 연구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연구자가 부족한 한국의 상황은 기성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좁은 테마 속에서만 安住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80년대 들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식인의 현저한 증가는 지식대중을 상대로 한 올바른 歷史教育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연구자들이 史料와 씨름하며 1차 작업에서 탈진하고 연구성과의 전달에 소홀해지는 면이 있으나, 歷史評論과 같은 글을 통해서 지식대중과 歷史認識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實證에 뿌리를 못내린 흥미위주의 史學이 범람하는 상황은 70년대 이래 韓國史學의 방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韓國學界가 한번은 거처야 할 시련의 과정으로서 올바른 歷史教育을 펴기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자들은 각종 研究史의 정리작업을 통해 자신의 좌표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東洋史學界는 이제 신랄한 批判과 치열한 論爭으로 그동안의 발전과 성숙을 증명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韓國人연구자의 연구성과가 포괄된 개성있는 東아시아史概說이 여럿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토대위에서 日本·中國學界에서 그런 東아시아歷史像과는 분명히 다르나, 東아시아史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外國學界에서도 참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韓國의 독자적인 東아시아歷史像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